

1930년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룬 실업자들.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을 태운 배안의 모습을 일러스트화 시켰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 '다양성과 통합성'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2·3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조지형·이영호·손세호·김연진·김덕호 옮김
휴머니스트 지음 | 각권 2만3천원

세계 역사상 오늘날의 미국처럼 다양한 힘을 가진 국가는 일찍이 없었다. 영국·프랑스·스페인·중국 등과 같이 그대 오 오늘날 세계사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손꼽히는 나라들도 미국 앞에서는 한낱 작은 강대국일 뿐이다. 그리고 보면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된 미국은 더 이상 단순한 일개 국가의 역사가 아니다. 다양한 큰 힘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걸쳐 미국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나라도 드물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고 방식에 따라 맹목적인 친미와 극렬한 반미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속살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신문이나 책, 방송 등에 연일 미국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근본적인 역

부러움과 증오를 동시에 받는 나라 미국 아메리카 대륙 발전부터 현재까지 역사 해부

시에 관해 우리가 접할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2·3>은 미국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는데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폴립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시기부터 21세기 초반까지의 미국사를 총 세 권에 걸쳐 정리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지은이는 이 책에서 다양성과 통합성이라는 두 개의 힘이 미국의 역사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한편에서는 미국사회를 형성한 다양한 집단들, 즉 지역, 인종, 성, 민족, 종교, 계급에 기초하여 내부에서 발전한 독특한 세계를, 다른 한편에선 미국이 지닌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치고, 존속·변영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의 힘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미국은 국외와 미래를 내다보는 미국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로부터 단돈 720만달러에 매입한 알래스카는 미국 팽창주의의 상징이다. 1725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살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는 바로 슈어더 국부장관이었다. 그는 "집에 얼음이 없으면 겨울 강에 깔린 얼음을 깨다가 채운 일이지 알래스카까지 살 이유가 무엇이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알래스카가 없었다면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듯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 하지만 이러한 면만 보고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만 바라

본다면 미국을 제대로 본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미국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지만, 미국인들의 특색인 뿌리는 제 3제 제퍼슨 대통령의 말에서 극대화를 이룬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은 "신에게 선택받은 미국인은 다른 국민에게 굴욕과 수모를 받기에는 너무 높으며,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말에는 미국인만이 선택됐으며 미국인만이 중요하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이 내재돼 있다. 그리고 보면 요즈음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도 이 명백한 운명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1권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 직전까지의 시기로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국가주의를 형성하는 가운데 통합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어 2권은 남북전쟁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로 남북전쟁 발발 및 그 이후, 서구정복,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제국주의로 치닫는 과정을 기술했다. 마지막 3권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9.11 테러 이후의 21세기 초반까지 세계 속의 미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놓아 미국사를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지도 및 그림, 사진 자료와 함께 각 권마다 실린 노예제도와 미국혁명, 남북전쟁, 베트남전쟁 등 미국 역사의 주요 쟁점 17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과거를 논하며' 코너도 독자들의 미국사에 대한 이해를 한껏 깊게 해준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기업가 정신과 국가 경쟁력
노부호 지음 | 서강대출판부 | 1만3천원

이 책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그 중심에 기업가 정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경쟁의 측면에서 고객 경영, 세계경영, 목표관리 등을 다루면서 기업경쟁의 기초는 종업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이것이 정보화시대에 와서 더욱 중요해졌다.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간적 경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선 종업원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목표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에서도 자율적으로 토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참여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6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아직도 정부는 규제위주의 기업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산 지경에 있는 기업을 살려주고 벤처지원, 중소기업지원

권위주의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등 정부의 공적 부조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

지은이는 지금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화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의 평등 의식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차등 의식 성과주의를 정착시켜나감으로써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만들어 나가는 자율경영 그리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책임 경영을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혁명적 변화는 정부가 경제에서 손을 떼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기업경영에 경영력 보다 정치력이 더 중요하고 지시 간섭 위주의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힘들다. 또한 로비가 중요해져 집단주의가 자라게 되고 집단주의 하에서는 차별보다는 평등, 성과보다는 연고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업과 금융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monitoring)하면서 경영 주체들이 적기에 시장조치를 따를 수 있도록 권고를 주는 것이다. 도산 지경에 있는 기업은 시장에 맡겨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도록 해야 자율과 책임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경제의 체질은 강화되는 것이다. 아직도 상장기업의 30%정도가 이자보상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한국기업에 보다 강도 높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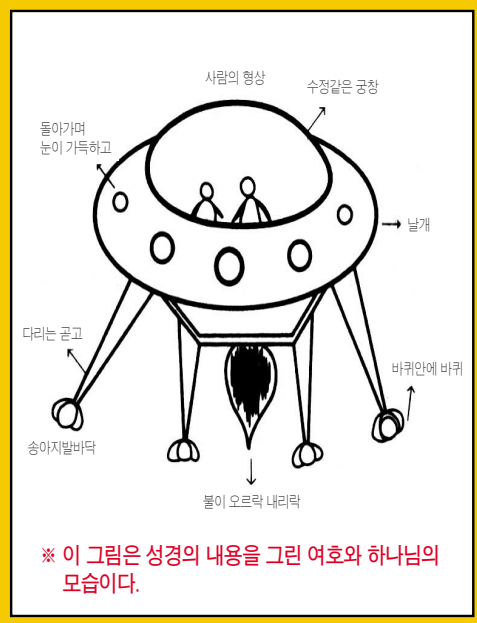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봉사자향적 정부를 통한 규제개혁과 조세 감축,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정리해고에 기초를 둔 노사협력 그리고 외국기업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개방적 시각이 요구된다. **■양동훈(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
절찬리 판매중!!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UFO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신변(身邊)에 의식(意識)과 인식(認識)의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마음에 새로운 광명이 비칠 것이다.

-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색(색깔)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 바퀴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정같은 공장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짜제트분사)
 - ▶ 공중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적 광명이 비친다.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이 이야기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 기독교(천주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100% 외계인이라고 증명한 책. 여호와와 신이 아니며 잔인한 외계인일 뿐이다.

* 이 광고는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에서 후원하는 것임. 후원에 동참하실 분은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군·心

(만의 위대한 힘)

만성지음

군의 최초 해설서

군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군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